

진짜사장·진짜교섭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테크젠

똥자, 원청교섭! 가자, 양재동으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17,000여명의 조합원들은 18개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삼호중공업 등 조선사는 금속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현장에 공고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등 현대차그룹 소속 사업장은 한 곳도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그룹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원청교섭 요구 조합원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모든 현대차그룹사 사용자의 원청교섭에 대한 대응을 '양재동'(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지휘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금속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사는 자회사·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사용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자회사·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그룹 모든 회사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비정규직 임금과 성과금을 차별 지급하며, 원청 지분 100%의 자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말입니다.

저들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대차그룹사의 성과분배 차별과 불법파견 확대, 자회사 설립, 심지어 전임자 문제까지 '양재동 가이드라인'에 막혀왔습니다. 이제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똥는 과제가 더 얹혀졌습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4월 15일 전국 확대간부가 현대차그룹 본사가 있는 양재동으로 모입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차그룹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자회사·하청 노동자들이 맨 앞에서 저들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읍시다.



현장이야기 5



불법파견 20년 원청교섭으로 끝내자!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이 흘렀지만, 현대차아산공장의 시계는 멈춰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아산공장에는 이룸테크, SMA에벤에셀, 맨파워코리아, 엠멕, 다승, 미성 그리고 베일에 싸인 엘림까지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은 공정을 쪼개고 현대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림막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자리는 명백한 정규직 자리이며, 원청 현대차의 지휘 아래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6년 사법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분명히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며 적반하장입니다. 또한 과거의 불법이 오늘날 하급심에서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후퇴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2년미만 기간제 촉탁계약직으로 채웁니다. 2년 계약종료후 대부분 재계약이 안됩니다. 비정규직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꼴입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원청 현대차가 이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자부할 때, 성장의 밑거름이 된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 고용과 차별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주식과 수익 등의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약은 불법을 걷어내고 노동가치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청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 특별협의체>를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마냥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백명일 /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지회장